

남양주시 관내 국도대체 우회도로  
**사능-호평 도로현장**  
(현장소장 성유경)



한진중공업에서 시공 중인 남양주시 관내 국도대체 우회도로 사능-호평 도로공사는 서울 지방 국토 관리청에서 발주한 공사로서 국도 46호선 중 경기도 남양주시 진건읍 사능리에서 남양주시 호평동까지의 도로공사이다. 기존 도로가 시가지 팽창으로 인해 교통체증이 점차 극심하게 됨에 따라 이를 해소하고 경기북부 및 강원도 지방의 위락시설과 관광시설의 효과적인 접근 및 이동, 호평택지개발 입주민들의 원활한 교통소통을 도모할 목적으로 건설되고 있는 현장을 찾았다.

## 주민 편의위한 임시개통으로 호평 받는 사능-호평 도로현장



사능-호평 도로현장은 경기도 남양주시 사능리에서 남양주시 호평동까지의 총연장 6.143km, 폭20.0m 4차선 자동차 전용도로로 1998년 3월 착공해 2006년 12월 준공 예정인 공사로서, 토공 1,628,000㎡, 교량 3개소 1,190m(STEEL BOX GIRDER 3개소 950m, P.S.C BEAM 3개소 240m), 터널 2차선분리 515m(NATM 공법), 배수공 14개소 746m, ASCON 1052a, 기타 부대공사 등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투입된 자재는 강판 8,000ton, 콘크리트 80,000㎡, ASCON 60,000ton, 철근 9,000ton, 골재 140,000㎡ 이며 연인원 24,000명의 인원이 투입된 대규모 공사이다.

이곳 현장을 총 지휘하고 있는 한진중공업 성유경 소장은 국내외 25년의 풍부한 공사경험을 바탕으로 이곳 현장의 원활한 마감을 위해 최근 부임해, 공사초기부터 한진중공업의 미래창조 정신으로 근무하고 있는 직원과 근로자들의 노력이 훌륭한 결실을 맺는 현장이 되도록 하기 위해 혼신을 다하고 있다.

성유경 현장소장은 특히, 안전과 품질을 최우선으로

강조하며, 도로노선과 관련한 각종 민원과 문화재 발굴로 인한 작업지연 등의 어려움 속에서도 친환경적 현장 즉, 사람과 자연이 공존하는 도로를 건설하고 있다. 또한, 마감공사의 어려운 여건 하에서도 주민들의 편의를 위해 임시개통을 도모해 관내 주민들로부터 찬사를 받고 있다.

그간 교통 체증으로 고통을 겪어온 관내 신규 조성된 대규모 택지에 입주한 주민들의 교통편의를 위해 마무리 공사의 어려움을 무릅쓰고 임시개통을 시행함으로써 출·퇴근 시간의 단축은 물론 물류비용 절감에 따른 투자효과 조기 달성으로 산업경쟁력 강화에도 일조를 하고 있는 우수 현장으로 며칠전에는 한 주민이 수확한 남양주 명물 먹골배를 현장 사무실로 들고와 감사의 표시를 하기도해 감개가 무량했다는 한진중공업 사능-호평 현장. 현재 한진중공업 사능-호평 현장 전 임·직원들은 현장의 성공적인 준공을 위하여 완벽한 시공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서울지방국토관리청 최초로 ISO 규정에 의한 품질관리기준 적용현장  
 ☆감시원 부실공사 방지대책 기준마련을 위한 시범현장



시능-호평 도로현장은 서울 지방 국토관리청 최초로 ISO 규정에 의한 품질관리 기준 현장으로 작업절차서 및 시공계획서를 공종별로 작성하고 품질계획을 수립하여 ISO 규정에의한 맞춤식 품질관리로 성공적인 공사를 수행하였다. 또한, 주요 구조물의 SHOP DRAWING을 작성·배포하여 기능공들이 쉽게 이해하고 시공에 임할 수 있도록 조치하였으며 수시로 현장을 확인 점검하여 완벽한 품질 달성을 도모하고 있는 현장이다.

이외에도 이곳 현장은 감시원 부실공사 방지대책 기준마련을 위한 시범현장으로 모든 공종의 관리자 및 기능공들을 실명화(성명, 주민등록번호)하여 관리자와 기능공이 이름을 걸고 작업함으로써 보다 책임감 있는 시공을 도모해 완벽에 완벽을 더한 혼을 담은 시공으로 마무리 공사에 전력을 다하고 있다.

## 자율 안전보건 경영 실천으로 무재해 달성한 우수 현장



한진중공업 이윤희 상무, 우리협회 박구준 부회장, (주)평화엔지니어링 신용목 전무, 성유경 소장(좌로부터)

사능-호평 도로현장은 자율 안전보건 경영 시스템 (KOSHA 18001)을 적용 운영함으로써 안전사고 ZERO화를 추진하고 있는 현장이다.

매월 4일 모든 근로자가 참여하는 안전의 날 행사를 통해 안전의식을 고취하고 있으며, 협력업체 소장들이 작업반장과 함께 직접 시설물을 점검하고, 매월 2회 협의회 회의를 주재해 2주후의 공정표에 의거 적극적인

위험성 평가를 하고 있다. 또한, 공종별 위험도를 산출해 작업 시행 전 안전한 시설물이 설치된 후 기능공을 투입하고 있으며 지속적인 PDCA를 실천함으로써 전 근로자의 안전의식을 향상 시키고 있다. 또한 개인별 안전실적 마일리지를 적용하여 매월 포상을 하는 등 완벽한 무재해 현장을 달성해 나가고 있다. ☺

## 한진중공업 성유경 소장 프로필



- 토목시공기술사
- 해외공사(필리핀, 사우디 아라비아) 경력 10년
- 국내공사(김포공항, 양양공항, 중앙고속도로 외) 경력 15년

### ※ 주요 수상경력

- 2002년 서울지방항공청장 표창 수상